

## 은행 'AI 성숙도 지수'와 AI 관리 체계 개선

신 상 희 수석연구원(sanghuishin@hanafn.com)

영 핀테크 기업인 Evident가 주요국 대형은행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기반으로 AI 성숙도 지수를 발표했다. 주요 은행들조차 JP모건을 제외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임직원 역량, 혁신, 리더십 및 투명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. AI를 통해 수익성을 탁월하게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목적의 AI 전략을 중시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된 AI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 우리나라 금융사도 AI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기적인 AI 성숙도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.

### ■ 금융 산업 내 인공지능(AI) 활용 규모는 증가 추세로서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됨

- 금융 산업의 AI 이용률은 쉰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향후에도 상승 전망
  - '21년 글로벌 금융기관의 AI 채택 및 이용률은 78%이며(Nvidia), '22년 영국 금융기관의 72%는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·개발 중(Bank of England)
  - 반면 '22년 전 세계 기업체의 AI 이용률은 50%로 정체(McKinsey)
-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,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제고 위해 AI 활용
  - '22년 기준 글로벌 금융기관은 자연어 처리(26%), 추천·포트폴리오 최적화(23%), 자금 세탁/금융사기 탐지(22%) 등의 목적으로 AI 활용(Nvidia)

### ■ 영 핀테크 스타트업인 Evident가 북미 및 유럽계 대형은행 23곳의 AI 활용 실태를 바탕으로 'AI 성숙도 지수'(AI maturity index) 발표<sup>1)</sup>

- 해당 지수는 ① 임직원 역량(40%), ② 혁신(30%), ③ 리더십(15%), ④ 투명성(15%) 등 부문별 143개 지표로 기업의 AI 역량 평가(괄호 안 가중치)
- 평가 결과 1위는 JP모건(62.6점)으로 리더십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(70.9점)를 받았으며, 임직원 역량(65.8점) 및 혁신(62.5점) 면에서도 최상위 성과
  -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AI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지속하여, 경영진부터 AI를 체계적인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
  - JP모건은 피인용건수 11건 이상인 논문을 발표한 직원 수가 가장 많았으며(60인 이상), 주요 빅테크 기업 및 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, 특허건수 또한 타행대비 월등히 많음(1,600~1,800건)
- JP모건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AI 성과 개선 필요

[1] "AI INDEX BANKS: The global standard benchmark of AI maturity", Evident, 2023

■ 금융 산업 내 AI 성과를 개선하려면 효율적인 AI 전략 및 지배구조, 주기적 검증을 통한 AI 모형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, 임직원 역량 강화 등 필요<sup>2)</sup>

- AI 고성과 기업은 타 기업과 차별화된 AI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공통점 보유
  - AI를 활용함으로써 EBITA가 20%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기업(‘AI 고성과 기업’)은 전사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AI 전략을 우선시하는 로드맵을 보유
- 운영 실무 차원에서 AI 고성과 기업은 신규 데이터를 AI 모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·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, 수학·통계적 근거가 탄탄한 AI 모형을 통해 데이터 규모에 강건한(robust)한 결과를 산출
  - 뿐만 아니라, AI 및 데이터 지배구조, 데이터 품질 관리, 주기적인 모형 평가 등 AI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
- 한편, 우수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직원의 역량강화도 대안
  - AI 고성과 기업은 기술 관련 우수 대학 제휴(58%), 임직원 교육(47%), 우수 기술 기업 인력 유치(46%) 등을 통해 AI 인재 구인난에 대응

■ 국내 금융사도 AI 성과 및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성숙도 지수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

- Evident의 은행 AI 성숙도 지수는 향후 국내 금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
  - 금융사는 경영진의 일관된 AI 경영 방침 하 효과적인 AI 전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AI 우수 인재를 채용·훈련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
  - 고객 대상으로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
- 한편, 규제와 낡은 전산시스템(legacy system)이 국내 금융 산업 내 AI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
  - 글로벌 AI 지수(英 Tortoise Intelligence) 기준 우리나라의 '22년 종합 순위는 7위지만, 관련 규제의 복잡성·모호성으로 인해 ‘운영 환경’ 부분에서는 32위 기록 

■ 은행별 AI 성숙도 지수 (순위, 괄호 안 점수)

회사명	순위(점수)	역량	혁신	리더십	투명성
JP Morgan	1(62.6)	1	1	1	1
RBC	2(41.4)	7	3	7	3
Citigroup	3(39.0)	6	2	13	9
UBS Group	4(38.6)	4	9	5	15
Wells Fargo	5(38.0)	5	8	14	5
Toronto-Dominion	6(37.9)	10	16	2	2
ING Group	7(37.6)	3	10	8	6
BOA	8(37.4)	2	7	15	16
BNP Paribas	9(34.4)	12	13	3	7
Morgan Stanley	10(33.5)	11	4	11	19

자료 : Evident (2023)

■ AI 성숙도 지수의 주요 평가지표

기준	하위기준	평가기준 (요약)
임직원 역량	임직원 역량	AI 부서 직원의 관련 역량
	역량개발	은행의 인재 채용·보유·훈련 역량
혁신	연구 및 특허	은행 보유 논문·특허·세미나
	벤처 및 파트너십	AI 기업 대상 인수/투자/협업
리더십	생태계	AI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
	경영진 인식	경영진의 AI 인식 및 수준
투명성	AI 내러티브	AI 대한 은행 방침 및 커뮤니케이션
	책임감 있는 AI	책임감 있는 AI 관련 활동·기여
	AI 통제	AI 리스크 통제 노력

자료 : Evident (2023)

[2] “The state of AI in 2022—and a half decade in review”, McKinsey, 2022